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2.(목) 11:00,
(지면) 2023. 11. 3.(금) 조간

배포 2023. 11. 2.(목) 06:00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본격 지원한다

- 11월 3일, 한국 핵심 원양어장인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현지시간 11월 3일(금)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촌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 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하여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공적원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원양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주요 원양어장을 대상으로 어촌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360)
		담당자	사무관	김경정 (044-200-5366)

참 고

투발루 어촌개발 ODA(공적원조) 사업 개요 및 전경

□ 투발루 어촌개발 ODA(공적원조) 사업 개요

- (내용) ①소규모 어선 접안 부두(jetty) 건설, ②주민 쉼터·어업훈련 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커뮤니티센터(2층 규모) 건립, ③어시장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④어업인 기술 훈련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67억원 / '23~'26년

(단위 : 억원)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23	'24	사업 기간
소규모 어항 및 어시장 태양광 패널	22	-	6	2024~2026
커뮤니티센터 건립	22	-	7	2024~2026
투발루 어촌주민 역량강화	8	8	-	2023~2024
기본계획·실시설계 및 감리	15	12	3	2023~2026
총 소요	67	20	16	2023~2026

* 세부사업 프로그램 수립은 농어촌공사에 용역 위탁

□ 투발루 어촌개발 ODA(공적원조) 사업 전경



